

헤드라인제주

HOME > 사회

제주도 사회서비스원 개원... "돌봄에 공공성 가치 더한 사회서비스 제공"

윤 원성심 기자 | 승인 2021.12.28 11:23



제주시 애조로 1254(오라이동)에 위치한 재단법인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양시연)이 28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사회서비스원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고령사회의 도래,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아동·노인 등 돌봄서비스 제공,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종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다.

이날 개원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유튜브 채널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채널을 통해 업로드 될 예정이다. 영상에는 경과보고, 축사, 개원사, 제주도민이 바라는 사회서비스원의 미래 등을 담고 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개원 기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로서 도민을 위한 더 튼튼한 복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제주에서 공공분야의 핵심적 돌봄 인프라인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축하하며, 지역사회내 믿을 수 있는 공공돌봄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시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초대 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사회서비스에 돌봄의 가치를 더해 도민이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를 누리는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내년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1곳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운영 인력은 공개채용을 통한 필수 인력 10명으로 출발한다. 원장과 제주자치도 파견 공무원 1명, 경력직 8명이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전국 12개 시·도(서울·대구·경기·경남·인천·광주·대전·세종·강원·충남·전남·전북)에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제주도는 13번째로 개원을 하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성심 기자